



2013.03.14

## 구식청년

Orchuuulisan O.Nominn<sup>9</sup>

시골의 모습이 하찮고, 시대의 상황은 불안하다. 모래가 깔려 있는 샘, 풀이 자란 들을 따라 있는 게르 /유목민의 전통가옥/에서 가끔 연기가 나온다. 사방이 펼쳐져 쓸쓸하고, 하얀 연기가 침전한다. 짹통 더위에 펠트 게르 안에서 숨 막히고, 목민의 마음이 답답해진다. 게르의 밑자락에는 소똥이 흩어져 있다. 여기저기로 송아지 몇 마리가 뛰어달린다. 걸음마 배우기부터 흰머리가 나올 때까지 한강을 오르락내리락 유목 생활을 하고, 한 우물을 돌려가면서 살고, 이 세상을 떠난다.

갑즈 (불교라마승의 벼슬) 짬발이 상석에 앉아서 ‘신이요, 부처요’라고 많은 말을 한다. 자이산 (지방수령) 남질이 멀리서 와서 ‘법이다, 법률이다’라고 큰소리 친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듣고 하루, 한 달, 일년을 보낸다. 저산을 넘으면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평선 뒤에는 땅이 없다고 여긴다. 이렇게 지내는 사이 만사가 끝나버린다. 구식청년은 세계교육에서 벼려진다.

아침에는 부처님을 공양하고, 저녁에는 하늘에 절을 올린다. 이렇게 어두운 안개속에서 평생을 보낸다. 구식청년은 황갈색 말을 자유롭게 타면서 달려왔다. 하얀천으로 머리를 묶었다. 엉크러진 까만 옆머리가 흘러내려온다. 낚아서 찢어진 소매를 접어올렸고, 더러운 거칠거칠한 발꼼치가 보인다. 말에서 덜거리내려, 고삐를 철썩 끌어서, 먼지가 묻은 햇빛에 탄 얼굴의 땀을 텔 /몽골 전통옷/ 앞자락으로 닦은 후, 코를 세게 풀고 게르에 들어갔다.

“발단으네 펠트를 만들고 있다. 천데네 양에게 양염을 먹이고 있다. 담바가 말찾으러 갔다. 껌벼가 항가이/몽골의 서북지방, 산과 강이 있는 곳/ 갔다왔다”라고 어른들에게 얘기한다. 그리고 갑즈님이라고 눈을 내리깔며 빈다. 자이산님이라 고약한 소리를 내며, 난로 옆에 앉는다.

아주머니한테 서타라그 (요구르트) 한장, 조금한 호삼 (우유를 끓으면 가마솥 밑에 붙여남은 것)을 얻어먹는다. 부자 발지르의 집에 가서 망아지를 당겨주고, 마유주를 얻어먹고 한낮을 보낸다. 왕족 텐데브집에서 양을 잡고 양내장을 먹고 한 저녁을 끝낸다. 비록 머리가 좋고 영리하지만 동쪽호쇼 (한국의 도에 해당되는

<sup>9</sup>МУИС-ийн ГХСС-ийн Солонгос хэлний 4-р ангийн оюутан

행정구역) 변두리까지 가본적이 없고, 서쪽 강을 건너간 적이 없다. 오직 삼사개의 역침 근처를 돌아서 살았기에 뭘 보고, 뭘들었었을까.

나이는 짧지만 일찍 부모를 여의고 혼자남은 구식 청년을 동래 사람들이 번갈아 심부름 시킨다. 좋은 삶의 길을 이미잃었다. 추운 겨울 밤에 남의 말을 봐준다. 여름 더위를 양을 치고지낸다. 가을에 등면에 들어가고 봄에 나오는 들쥐보다 불쌍하게 세월을 헛돼보낸다. 어른들, 조상들 말씀이라면 무조건 진실이라고 생각한다. 겨울 방목지, 여름집, 봄의 방목지, 가을 영지 네가지밖에 더이상 갈곳이 없다고 생각한다. 옆은 솔의 속같은 시골의 무지 속에서 자란다. 얼마나 슬프고 힘든삶, 얼마나 아까운 짧은나이, 왜 새로운 세상을 꿈꾸지 않을까?

이렇게 자랐으니 구식 청년은 자기 삶이 가여운 것조차 모른다. 귀족 및 불교 스님들의 부정부폐를 또 한여찌 알아차릴까. 이런 상황에 빠져서 고통은 행복이 되고, 야만은 즐거움이 되고 한아이막/행정구역/, 한나라가 다 구식청년과 같이 눈을 감고 귀를 막아, 세상이라는 것을 실제로 무엇인지를 보지도 알지도 못하고 들판에서 헛된 삶을 살게 되었다.

아깝다아깝다, 가엽다가엽다...

그러니 구식 청년의 한 친구가 인민 혁명이 일어난 날부터, 옆은 솔 안에 빛이 들어 오고 한 아이막이 깼다. 지편선 뒤에는 땅이있고,

또한 다섯 바다 다섯 대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새로운 세상을 같이 걸을길을 열었다.

파란 몽골이 빨간 몽골로 변했다.

구식청년이 신식 청년이 되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지.